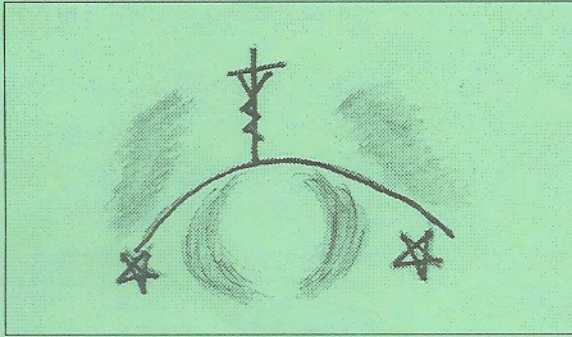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3주일, 성 베드로/바오로 대축일
제29권 31호(나해) 2009 · 6 · 28

[묵상]



성 베드로/바오로 대축일

그날 갈릴래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진 것 모조리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어
어둔 천지의 달처럼 우뚝 섰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살기를 내뿜으며
모조리 잡아끌고 오겠다며
다마스쿠스로 길 떠난 사울,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죄악의 천지를 비추는 별이 되어 반짝인다.
오늘은 그들이 밝히는 빛을 보며 기뻐하는 날이다.
베드로는 신앙고백의 모범이 되었고,
바오로는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었다.
이천년 동안 이어온 묵숨 바친 복음선포가
고요함 속에 크게 울려 퍼지고
큰 울림 속에 작은 구원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김정연 마리아, 김주일 미카엘
	(생)정케빈 요셉과 18차 선택주말 참가자들, 배론청년회 회장단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장현숙 발바라, 전규인 스테파노,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상현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유춘자 미카엘라, 박남길, 김종규, 박율당, 최효선 안젤라, 최남이 데레사, 김미카엘과 이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김정연 마리아
	(생)서성용 베드로, 이준 베드로, 윤희동 안토니오 가정, 이영석 크리스토폴 가정, 김용 스테파노 가정, 안에스터, 안마르코, 권오상 바오로, 김현빈 바오로, 서희준 마테오 가정, 민경근 베드로, 이종원 베드로, 오세원 사목회장 과 봉사자들, 김마틴 가정, 최영신 부제, 김윤근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12,1-11
화답송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우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리 없으리라. 보라, 가엾은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걱정을 씻어주셨도다. ◎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둘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복되다, 그님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 (2 Timothy) 4,6-8.17-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층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 음	마태오 (Matthew) 16,13-19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세우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7	107
봉헌	258	234,261
성체	꽃	306,295
파견	372	218

13)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가톨릭 교리서 2272항>

아기의 어머니와 의사 등 낙태를 행한 사람뿐 아니라 낙태를 권하고 도와준 사람들 역시 교회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기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낙태죄에 협력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파문의 제재, 즉 성사참여를 비롯해서 교회와의 친교와 권리에서 배제되는 벌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의사와 간호사들의 낙태 권유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행정 담당자, 낙태법을 승인한 입법자,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한 사람들, 낙태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기구, 재단, 단체들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9항 참조)

14) 모든 인간은 태중에서 시작될 때부터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다.

☞“인간 생명은 탄생에 앞서 있는 초기 단계를 포함하여 실존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성 불가침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자세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아시며, 당신 손수 그들을 빚으시고 엮으셨으며, 그들이 형상조차 생기지 않은 작은 태아일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태아들 안에서 장차 성인이 될 그들을 보십니다.”<생명의 복음 61항>

배아나 태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그리스도교 전승은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태중의 아기가 시작부터 하느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레미아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1,4-5) 하느님께서 태중의 단계를 거치는 인간 탄생의 전 과정을 섭리하셨다고 믿는다면 태중의 아기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존엄한 인간 생명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곧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집회서 18,33; 19,19)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강론에서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순교는 이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퍼져 나가고, 그들의 말은 땅 끝으로 번져 갔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길을 좇아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들의 으뜸이요,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한 복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 즉 반석이다." 이 말씀은 이보다 앞서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 즉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네가 고백하는 신앙을 내가 이 반석위에 세우리라. 네가 나더러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으니 내가 그 고백 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 즉 반석이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 않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도 '베트라'(반석)라는 말에서 연유하지 베드라가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수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만이 거의 어디서나 온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대표할 책임을 맡은 베드로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온 교회

가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탁월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 모든 이에게 주실 것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 나라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곳에서 모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역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 떼를 칠 과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혼자서만 주님의 양 떼를 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사도들 중 으뜸인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두번, 세번까지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경솔한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당신은 사랑의 고백도 세 번 해야 합니다. 세 번 묶은 것은 역시 세번 풀려져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묶은 것을 사랑으로 푸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번, 세번까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 떼를 맡기셨습니다. 이 두 사도들의 순교는 같은 날에 기념합니다. 이 두 분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날에 순교했지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고 바울로가 뒤따랐습니다. 사도들의 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된 이 축일을 경건히 지내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 그들의 수고와 고난, 그리고 그들의 증거와 복음 전파를 공경하도록 합시다.

(Sermon 295, 1-2. 4. 7-8 : PL 38, 1348-1352)

이번주 전례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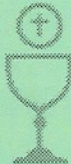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정은 젼마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7 월



◆ 병자 영성체 : 2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시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P.V. 구역

◆ 성모 신심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 5일(주일)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6월27일(토) 오후 6시 유아세례식에서 2명의 어린이가 남매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 박세진 스텔라 ● 박세민 사무엘
- ◆ '바오로의 해' 폐막 및 바오로 서간 필사 완성본 봉헌
사도 바오로의 해(2008년 6월29일~2009년 6월29일)를 마감하며 백삼위 신자들은 지난 1년동안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고 필사해왔습니다. 그 완성본을 오늘 주일(28일) 낮 미사 중에 소공동체 구역별 반장들이 봉헌합니다.
- ◆ 레지오 마리에 목요일 낮반 Pr. '신비로운 장미' 창단
지난 1월 창단된 백삼위 레지오 마리에 낮반 프레스디움 '하늘의 문'이 단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Pr. '신비로운 장미'를 분리, 창단했습니다.
● '신비로운 장미' 주회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50분
● 단장 : 반나영 체칠리아 ☎(310)293-5120
* 본당 프레스디움은 현재 수요일 저녁반 ▲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 ▲인자하신 어머니와 목요일 낮반 ▲하늘의 문 ▲신비로운 장미 등 6개단으로 늘어났습니다.
- ◆ 백삼위 울뜨레아 소식
● 6월 울뜨레아 정기 모임 : 오늘 주일(28일) 낮미사후 즉시

- 강당. 남성 제28차 꾸르실료 수강에 관해 의논사항이 있으므로 꾸르실리스타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요.
- 남가주 남성 제28차 꾸르실료(7/2~5일) 참가자 파견예식 : 7월2일(목) 낮 12시, 본당 성체 조배실
* 수강자 : 이희수 율리오, 김찬구 요한, 최현찬 안드레아, 김광일 스테파노
-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보급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 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 대학부 PACEM 매주 금요일 정기모임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본당 1층 회의실
● 대상 : 회원들간의 교육 및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회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 회장 황선홍 그레이고리 ☎(424)903-6637
- ◆ 남가주 청년연합회 소풍 및 체육대회
● 일시 : 7월12일(주일) 오전10시
백삼위 청년회/대학부는 오전 9시까지
● 위치 : El dorado Park (Lakewood), 회비 : \$5/person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310)508-2123
최인용 안드레아 ☎(310)991-0995
* 주차비가 \$5/car이므로 카풀하면 편리합니다.
- ◆ 전진성사 증서/기념사진 찾아가세요.
-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2종류, 각 \$20(사무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8일(주일) : 하버/카슨 1반(국밥 \$3)
● 7월5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 욱 박인식 이경태 채양석 최현찬 황철수	고천용 김종문 우영희 이태옥 천광락 한금순	국세찬 김주량 원건희 이희영 최영신 허정자	김광일 김현숙 유근우 정병훈 최원석 홍석인	김광자 문충한 육근주 정지숙 최인홍 황인중	김성일 박순자 이경용 조준제 최진수 황지영
미사헌금 : \$2,579	합계 : \$4,120					

성전헌금	강태홍 김 욱 박인식 이태옥 최영신 홍석인	고천용 김종문 원건희 이희영 최원석 황인중	국세찬 김주량 유근우 정지숙 최인홍 황지영	김광일 김현숙 이경용 조준제 최진수	김광자 문충한 이경태 채양석 최현찬	김성일 박순자 이일길 천광락 한금순
	합계 : \$2,770					
감사헌금 : 김선제 송호창						

주일학교 소식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지난 주일 종업식을 갖고 오는 9월 6일 주일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 학생미사 : 매 주일 오전 9시30분.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개학 : 9월13일(주일)

◆ 2009/10 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1차등록을 마치고 오는 8월중에 2차 등록을 재개합니다.
- 등록금 : \$100 (1년분)/접수 마감 이후 \$10 추가
둘째:\$80, 셋째:\$60, 넷째이후: 무료
(자모회비는 가정당 \$40)
 - 대상 : 유치원~12학년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75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청년들을 위한 제19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CA 90010)
- 지도신부 : 천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 신청 : 이세레나 ☎(562)569-0934
- 주최 : 남가주 성령채신 청년 봉사회(KYCR)

◆ 에콰도르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6일(월)~7월14일(화)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교구 팔마 본당과 공소
- 모집대상 : 의료진과 대학생, 일반 봉사자 *참가비 \$1500
- 지도 : 이영찬 신부
- 주관 : 해외 빈민구제회/가톨릭 의료봉사회
- 문의 : 정동현 마르첼리노☎(213)820-3162

이번 주 단체 모임

6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30분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7/10(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11(토), 할리웃볼, 5:30 웰슨팍 집합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임한나 325-6982 7/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강은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7/19(일) 오전 10시 델손팍 야유회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사목서간 - 티모테오 2서의 티토서 ◎

▶ **티모테오 후서**: 이 서간은 바오로의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하는 제자요, 복음 선교의 동료인 티모테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곤경에 대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선포와 신앙고백에 굳세게 머물러 있을 것과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간청한다.

편지의 구조를 보면 서간의 발신자는 인사와 함께 티모테오의 진실한 믿음에 감사하면서 바오로 자신의 사도직 소명을 확인하고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당부한다.(1,1-14) 서간의 본론인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언급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을 헌신하는 훌륭한 군사처럼,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 승리하는 운동선수처럼, 소출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농부처럼 성실한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속된 망언이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고 하느님께서 놓으신 튼튼한 기초에 충실하여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며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춘의 욕정(물욕, 권세욕, 명예욕, 성욕 등)을 피하고,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에 힘쓰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여 싸움을 피하고, 모든 이를 친절과 성실과 참음성으로 대하며, 특히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줄 것을 지도자의 생활지침으로 제시한다.(2,1-26) 바오로는 마지막 때의 힘든 시기에 관하여 언급한다. 서간은 마지막 때에 닥칠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는 바오로 자신이 어떻게 박해와 고난을 겪어냈는지가 그 본보기가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서부터 배우고 믿은 성경의 진리와 지혜를 활동의 지표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 때 오셔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실히 직무를 완수하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3,1-4,5) 이어 바오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개인적 부탁과 마지막 인사로 서간을 마친다.(4,6-22)

▶ **티토서**: 이 서간은 바오로가 크레타에 있는 티토에게 보낸 편지다. 바오로는 티토로 하여금 감독자들과 원로들을 임명하여 지방교회의 질서를 확립케 하고, 이단자들을 거슬러 싸우며, 교회 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고 권고한다.

비교적 짧은 분량(3장)으로 구성된 티토서는 바오로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들면서 사도직의 기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1,1-4) 이어 바오로는 티토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가 고을마다 공동체 지도자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이를 기회로 공동체의 사목자 또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한다.(1,5-9) 아울러 크레타 신자들이 헛된 신화와 그릇된 가르침에 속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한다.(1,10-16) 서간은 이제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2,11-15) 나아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통치자들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등에 빠지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3,1-11) 그리고 개인적 부탁과 함께 마지막 인사로 서간을 마친다.(3,12-15)◆

▶ 사도 성 바오로는 사울로서 한 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그가 박해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닫고 개종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생명까지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함으로써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된 “사도 성 바오로의 해”(2008년 6월 28일 ~ 2009년 6월 29일) 동안 우리 백삼위 성당의 신자들은 바오로 서간들을 필사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오로 사도의 모범을 따라 앞으로 향구한 신앙생활과 끊임없는 복음선포를 통하여 이번에 받은 진리와 은총을 더욱 증진시키며,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오로 서간 필사에 동참하여 주신 백삼위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주임신부]